

| 이슈페이퍼 2021-04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1. 연구 개요
 2. 영유아 빈곤가정 양육실태 요구 분석
 3.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 참고문헌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빈곤가정의 영유아는 다차원적 영역(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해결하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특성별 양육실태 및 요구를 살펴보았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빈곤가정과 미혼모 빈곤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보다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을 높게 경험하고,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한 경험이 많았음.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빈곤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보다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음.
-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음.
- 이상의 결과 등을 토대로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와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 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함.
-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밝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혀지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 ◆ 예를 들어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2018)의 연구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제기하였음.
- ◆ 이정림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만4~5세 유아들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같은 누리과정 5개 영역에 대한 관찰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취약 계층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빈곤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에서의 격차 이외에도 빈곤 가정 유아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 2008; 이정림·민정원·조혜주, 2014).
-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낮은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다차원적 영역(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내용이 줄어든 사회적 배경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지원사업 보강에 대한 고찰 필요
 - ◆ 최근 빈곤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현금 및 현물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정책 등에 대한 빈곤가정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도 파악 필요
 - ◆ 이상의 빈곤가정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 가정유형별 맞춤형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영유아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
-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생애 초기의 신생아·영유아시기부터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격차와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최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빈곤가정 영유아의 불리한 양육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가구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안하고자 함.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2차년도에 걸친 연구로써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 ◆ 2019년(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전반적인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통합적 지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영유아 양육에 있어 성장 및 발달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유해미·박은정·엄지원·정은희, 2019).
- ◆ 2020년(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빈곤가정을 가족 유형별(양부모가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로 구분하여 양육실태를 파악하였고, 더 촘촘한 맞춤형 양육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

나.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연구의 범위

- ◆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상의 가정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두 저소득으로 한정하였음.
- ◆ 이러한 전제하에 각 가정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일반 빈곤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득이 낮은 가정으로 한정
 - 한부모 및 미혼모부 빈곤가정의 경우 부와 모 모두 대상에 포함
 -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와 대리 양육 가정위탁을 포함
- ◆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수급가구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하였음.

■ 연구의 제한점

- ◆ 본 연구에서 조손가정은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조손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조손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파악은 하지 못함.
-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축소하였고,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전반적 요구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둬.

2

영유아 빈곤가정 양육실태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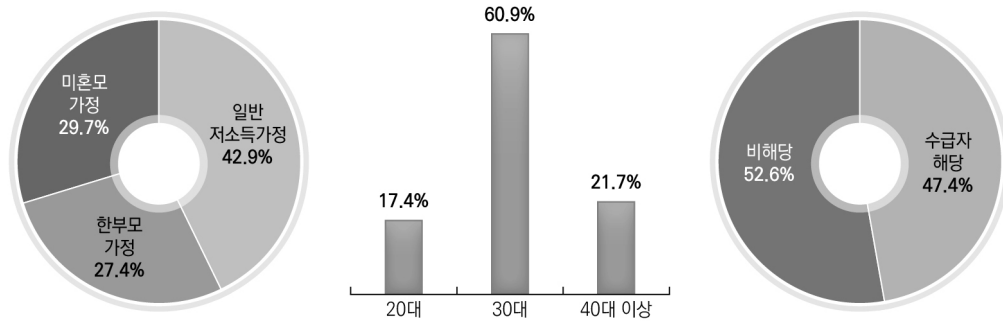
가. 응답자 특성

-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 3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 일반 빈곤가정이 42.9%(150명), 한부모 가정이 27.4%(96명), 미혼모 가정이 29.7%(104명)임.
- ◆ 양육자의 연령은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21.7%, 20대는 17.4%를 차지하였음.
-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47.4%, 아닌 경우는 52.6%로 대략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음.
- ◆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6%, 대졸 이상이 63.4%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4.6%, 비수도권이 45.4%로 비슷한 비율이었음.

〈표 1〉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350)	전체	100.0 (350)
자녀 연령		학력	
영아	67.4 (236)	고졸 이하	36.6 (128)
유아	32.6 (114)	대졸 이상	63.4 (222)
가정유형		지역 구분	
일반 저소득 가정	42.9 (150)	수도권	54.6 (191)
한부모 가정	27.4 (96)	비수도권	45.4 (159)
미혼모 가정	29.7 (104)		
양육자 연령		수급자 여부	
20대	17.4 (61)	해당	47.4 (166)
30대	60.9 (213)	비해당	52.6 (184)
40대 이상	21.7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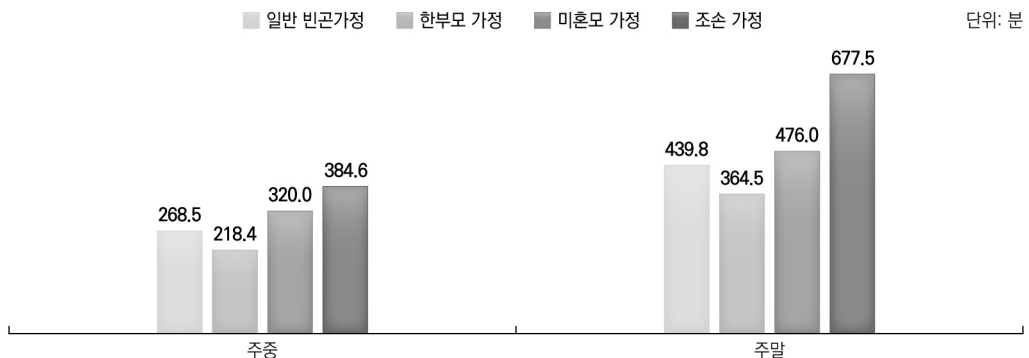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유형별, 연령 및 수급자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 조손가정의 설문 응답자 24명으로 사례 수가 적어서 가정유형별 비교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석하였음.
- ◆ 가정위탁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17명(70.8%), 가정위탁이 아닌 경우는 7명(29.2%)으로 나타났음.

나. 빈곤가정 특성별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녀 양육

- ◆ 주중과 주말의 돌봄시간이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주: 조손가정의 조사 참여 인원은 24명으로 사례수가 적음. 이에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림 2] 빈곤가정 유형별 주중 및 주말 가정 돌봄 시간 비교

- ◆ ‘아이가 생긴 이후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응답하였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이 일반 저소득 가정 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수)
전체	4.1	3.1	3.0	3.1	2.1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4.0	2.9	2.8	2.8	1.9	(150)
한부모 가정	4.0	3.2	3.2	3.3	2.2	(96)
미혼모 가정	4.2	3.2	3.1	3.3	2.3	(104)
<i>F</i>	2.1	2.2	3.3*	6.1**	6.4**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값임.

* $p < .05$, ** $p < .01$.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우울을 높게 경험함.

〈표 3〉 우울(PHQ-2)

단위: %(명), 점

구분	0~2점	3~6점	계(수)	평균
전체	64.3	35.7	100.0 (350)	2.4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75.3	24.7	100.0 (150)	2.0
한부모 가정	56.3	43.8	100.0 (96)	2.7
미혼모 가정	55.8	44.2	100.0 (104)	2.8
$\chi^2(df)/F$		13.959(2)***		8.3***

주: 본 척도는 ①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②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두 문항을 “전혀 없다” = 0점, “며칠 동안” = 1점, “일주일 이상” = 2점, “거의 매일” = 3점으로 평가하여 두 문항의 합을 제시함.

자료: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p < .001$.

- ◆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의 어려움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미혼모 가정이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육 어려움을 좀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4〉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수)
전체	4.0	3.7	3.2	3.5	3.0	2.8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3.9	3.7	3.2	3.1	2.6	2.9	(150)
한부모 가정	3.9	3.7	3.1	3.6	3.2	2.7	(96)
미혼모 가정	4.2	3.9	3.3	3.9	3.5	2.8	(104)
F	2.9	1.1	0.5	9.4***	22.6***	0.5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값임.

*** $p < .001$.

■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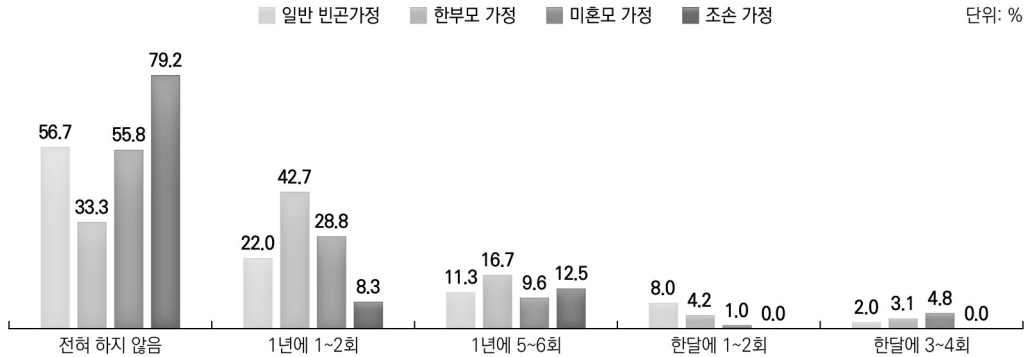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한 경험이 많았음.

■ 건강 및 영양, 식생활

- ◆ 미혼모 가정과 수급자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음.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영양상 균형 있는 음식 제공 비율이 낮음.

■ 문화생활

- ◆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음.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문화생활 경험(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적고, 문화생활 지출액도 적음.



주: 조손가정의 조사 참여 인원은 24명으로 사례수가 적음. 이에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림 3]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

■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 ◆ 빈곤가정은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중 영상시청 시간이 책읽기,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음.
-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영상시청 시간이 많음.

■ 양육지원정책

- ◆ 본 조사 참여 빈곤가정은 비용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육료)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주거지원 정책

- ◆ 본 조사 참여 빈곤가정은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지원 수혜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 ◆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며, 영유아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였음.
- ◆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여가 및 문화생활에, 조손가정은 학원/특별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시사점

- ◆ 자조 모임은 강력한 지지체계로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조 모임 지원과 확대가 필요함.
- ◆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상담전화, 가족상담, 법률상담 등의 홍보 및 내실화,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미혼모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 미혼모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경제적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미혼모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 ◆ 생애 초기부터 모유 수유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지원,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서는 한 명의 부모가 양육, 부양책임을 감당함으로 양육 지원 인력, 생활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문화생활의 어려움 및 자녀 영상시청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다. 빈곤가정 특성별 주양육자 (손)자녀 양육 관련 면담 분석 결과

- 심층 면담 조사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한부 혹은 한모인 한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7명, 미혼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취학전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 주양육자 2명으로 총 15명이었음.
- 다음에서 빈곤가정 특성(양부모 빈곤가정, 한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한부 빈곤가정, 조손가정)별로 (손)자녀 양육 관련 경험에 관한 면담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음.
- 일반 빈곤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가정내 양육자 역할, 부는 생계부양의 역할을 하였고, 가정보육,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소극적인 남편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및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함.
 - ◆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낌.

“저는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오는 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고 이 아이를 계속 봐야 하고, 이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도 다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긴장을 못 놓겠고...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 한부모가정(한모)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이혼 전에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폭력과 외도, 부부 갈등을 경험하였음
- ◆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 주거 및 취업 문제, 사회서비스 도움의 한계를 경험함.

“진짜 나와서는 무보증 원룸, 반지하에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싶었는데 가서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진짜 안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 가정 어린이집 보내놓고 식당 서빙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해보고 학원 행정알바도 하고...”

■ 미혼모 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 ◆ 사회서비스 도움의 한계, 원 가족과의 단절, 지지체계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을 경험함.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배신감도 많이 들 거고. 분명히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이라고 집을 나왔죠.”

■ 한부 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부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자녀 육아 및 교육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함.
- ◆ 근로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집에서 혼자 애 키우다 보니까 일 못하고. 그래서 인제 방법을 찾아봤죠. 찾아보면 자기한테 맞는 기회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뭐죠 영세민? 옛날 말로 영세민이죠. 그 영세민 신청해서 되기도 하고...”

■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 경험

- ◆ 자녀의 가출(본 연구의 주양육자: 외조모), 경제적 어려움 및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병을 얻음.
- ◆ 사회서비스(가정위탁, 보육 서비스)의 도움의 한계, 위기 시 지원 체계 부족을 경험함.

“힘들 때는 마이 보채고 울고 막 이래 할 때. 아프고 할 때 아이가 마이 아프고 할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한 3번 입원시키고 했는데. 그 때가 제일 힘들었고.”

3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가. 기본 방향

■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

- ◆ 빈곤가정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기 투자가 필요함.
- ◆ 전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가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양육지원을 위한 외부 인적 자원 및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적절한 놀이 환경 제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체 발달 및 언어·인지 발달,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 문화적 체험을 통한 사회·정서 발달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총체적 부실은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음.
- ◆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격차는 점점 커져서 이로 인한 부정적 발달 궤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 밝혀진 바임(김수정·정익중, 2017; Heckman, 2008; Wößmann, 2008; Heckman & Corbin, 2016; 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 2009).

■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

- ◆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인한 사회적 고립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더 심한 상황으로, 제반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노부모의 육체적 노쇠함, 사회변화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자녀의 훈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정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빈곤가정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나.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 ◆ 사례중심의 영유아 관리를 질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기회 제공 등이 필요
- ◆ 빈곤가정의 경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조부모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 한부모나 미혼모의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조손가정의 손자녀 부모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필요
-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 빈곤가정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자가용 소지에 대한 비용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소득기준을 설정하는 조례 등이 필요함.

- 영아 및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드림스타트 활성화 뿐 아니라 조기드림스타트 사업의 시작도 필요함.
 - ◆ 조기드림스타트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이 필요
- 빈곤 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
 - 영유아 시기가 신체적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에 식비 제공 등이 필요함.
 - ◆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 문화바우처 지원 등이 주로 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더 어린 연령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
 -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소득의 정규직 형태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양육 수당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선물, 방문을 통한 영유아와의 책읽기, 어린이 대상 책읽기 프로그램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환경 제공
 - ◆ 빈곤가정의 영유아 대상의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
 - ◆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빈곤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존체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을 통하여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이 필요함.

다.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일반 빈곤가정 지원 방안

- ◆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술 문제 등으로 어머니 혼자 독박육아를 하며 아버지의 경제력과 양육에 대한 도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원 필요
- ◆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이용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정림·이미화·오유정, 2013)를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방안

- ◆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자립과 자존감,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 등의 향상을 위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함.
 - 같은 미혼모(부)나 한부모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한 사례들로부터 얻는 교훈이나 조언 등으로 해결 방안을 삼아서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점에서 고무적임.
 - 이에, 이러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함.
-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양부모 위주의 교육임을 고려하여 한부모와 미혼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편부는 양육기술과 양육 능력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한편, 한부모와 미혼모, 편부로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및 양육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해 부모교육 매뉴얼 책자 제공,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센터활용, 가정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장소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한부모, 미혼모와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함.
-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경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하려고 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주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미혼모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전달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함.

■ 조손 가정 지원 방안

- ◆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조손가정을 찾아가서 복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 신청을 받고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마련
- ◆ 조손가정에 대한 주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p>빈곤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 •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 • 책임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연계 및 활성화 •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
<p>조기 드림스타트 사업기반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모 가정의 경우, 임신 시 출산 결정여부, 출산 준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미혼모 빈곤가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빈곤가정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신생아 시기의 생애 초기의 주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
<p>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계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사례중심의 영유아 관리 •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빈곤가정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례관리 • 전국소재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빈곤가정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p>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저소득 가정: 일반 저소득 가정의 사례관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모의 자동차에 보유에 대한 소득 인정액 완화 • 조손가정: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업무 명확화
<p>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기존체계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그림 4]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방안

I 참고문헌 I

- 김수정·정익중(2017).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9-33.
- 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2008).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을 위한 미취학 빈곤 아동 건강 및 양육 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04-115.
-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유해미·박은정·엄지원·정은희(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202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김아름·엄지원(2018).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누리과정 유아 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미화·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Heckman, J. J. (2008).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 Doyle, O., Harmon, C. P., Heckman, J. J., & Tremblay, R. E. (2009). Investing in early human development: timing and economic efficiency. *Economics & Human Biology*, 7(1), 1-6.
- WöB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